

영어통사 상 α -이동*

고 태 홍**

目 次

- I. 서 론
- II. 핵 이동
- III. 논항 이동
- IV. 운용소 이동
- V. 이동과 장벽
- VI. 결 론

I. 서 론

Chomsky(1965)의 표준이론은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라는 두 가지 문법적 계층을 설정하고, 변형규칙이 의미의 변화를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해석은 심층구조에서 결정되는 문법이론이었다. 그러나 확대표준 이론(Chomsky, 1971)에서는 의미해석이 심층구조에 의해 완전히 결정될 수는 없고 논리형태(LF)에서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이 확대표준 이론을 기초로 하여 Chomsky(1981)는 지배-결속 이론(GB Theory)을 제안하였다. GB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문법현상을 표준이론에서처럼 개별적으로 분석 또는 설명하려 하지않고 원리체계에 입각하여 조합적(modular)으로 설명하려한다. 이 GB이론에서 통사론 연구는 인간의 대뇌속에 있다고 간주되는 언어능력(competence)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추상적 계층구조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 체계의 GB이론에서는 종래의 생성문법 규칙들이 떠맡던 문법적 역할들을 원리들이 분담하여 맡고 보니 결국 종래의 여러 변형규칙들은 α -이동이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축소·통합되게 되었다.

α 는 결정되지 않은 변항이므로 아무것이나 어디로든지 이동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α -이동규칙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동할 성분이나 장소에 제한을 두고 있

* 이 논문은 1997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국외과건연구 지원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어교육과 교수

지 않다. 이 이동 규칙은 실질적 내용은 전혀 없이 이동의 시동만 걸어주는 규칙으로서, 이동의 대상, 방향, 거리, 착지 등은 원리체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규칙의 기능이 최소한으로 축소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과잉 생성되는 부적격 문장들은 의미역이론, 격이론, 결속이론 등의 작용에 의하여 억제된다.

α -이동은 임의의 요소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규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편문법의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 때문에 특정 요소를 특정 위치로 이동시킬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이동되는 요소의 흔적은 선행사를 가져야하고 흔적은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ECP, Chomsky 1981: 250)를 충족해야 하므로 고유지배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상 상향 이동은 가능하지만 하강이동은 불가능하다. 또, 의미역 기준에 따라 비의미역 위치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흔적과 선행사의 관계는 하위인접 조건(subjacency condition: Chomsky 1973: 250)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조건은 어떤 요소가 이동할 때, 일정 수 이상의 경계(boundary)를 넘어 이동할 수 없다는 제약이다.

본 연구는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 핵이동(Head-Movement)에서는 핵계층 규약을 비어휘 범주인 S와 S' 에까지 확장하여 S와 S' 를 각각 IP와 CP분석해야 한다는 Chomsky(1986a:161)의 주장에 따라 V-이동(V-Movement)이나 I-이동(I-Movement)을 다룬다. 이 경우 V나 I는 각각 VP와 IP의 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의 자리인 I나 C의 위치로만 이동·삽입하고, 이동되는 요소의 원래 위치에는 흔적이 남게되는데 이 흔적의 문법적 역할을 연구하게 된다. 제 III 장 논항-이동(A-Movement)에서는 NP를 IP의 지정어 위치로만 이동·삽입하는 수동구문과 인상구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 두 구문의 도출은 격 여과와 의미역에 관련되어 NP이동 후 출력이 핵 계층이론에 부합해야 함으로 NP-이동이 구조보존적임을 연구하게 된다. 제 IV 장 운용소-이동에서는 여러 유형의 의문문중 직접 비방향 의문문을 중심으로 wh-이동규칙을 설정해야 할 근거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동의 대상이 되는 요소, 이동되는 요소의 착지 문제를 조함문법의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특히, 착지 문제는 변형문법 초기의 S' 는 'NP-I-VP' 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가해지게 된다. 더욱이 논항 이동이나 운용소 이동은 'VP 내부 주어 가설'을 토대로 하게된다. 제 V 장 이동과 장벽에서는 어떤 최대투사는 본유적으로 장벽성을 부여받고 또, 어떤 최대투사는 인계에 의하여 장벽이 됨을 보게된다. 이러한 장벽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L-표시, 차단범주, 최소조건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제 VI 장 결론에서는 제 II 장에서 제 IV 장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겠다.

제 II 장 핵 이동

α 이동의 α 가 NP, PP 등의 최대투사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최대투사가 아닌 X° 를 움직이는 X° 이동도 있다. X-bar 이론에 따르면, X° 는 필연적으로 핵이어야 하므로, X° 이동은 핵을 움직이는 것이다. 또 Emonds(1976)의 구조보존가설에 따라 핵 이동은 핵에서 핵으로의 이동이 된다. 이 장에서는 I-이동과 V-이동 두 개의 이동을 살펴보겠다. 핵 이동은 국부적이어서 가장 가까운 X위치로의 이동이고, 형태론적 필요성에 의한 의무적인 이동이다.

먼저 I-이동을 보자. 보문사 C는 주어 앞에서 절을 이끈다. 이러한 절을 CP라고 하고, C의 자리는 that/for/if로 채워진다. 그러나 C가 주어 앞에 오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전도구문에서 Aux도 주어 앞에 올 수 있다(Radford 1997:106).

- 1) A: Honey-buns, there's something I wanted to ask you.
 B: What, sweetie-pie?
 A: *If you will marry me.*
 B: (Pretending not to hear) What d' you say, darlin' ?
 A: *Will you marry me?*

1)에서 A가 말하고 있는 이탤릭체 문장 'If you will marry me'의 구조는 C인 if로 인도되는 절이기 때문에 CP성분이다. 또한 'Will you marry me?'에서 will은 if가 차지하고 있던 CP의 핵인 C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will과 if는 '*If will you marry me?'이나 'I wonder whether will Amy leave.'에서처럼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다. 이처럼 핵 이동을 설정함으로써, 조동사 도치와 보문사의 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2) a. Please look after my dog if I should die.
 b. Please look after my dog should I die.
 c. *Please look after my dog [_{CP} [_C if should.] [_{TP} I t die]].

2)에서 보듯이,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면 should가 도치되고, if가 생략되지 않으면 should가 도치되지 않는다. 이 현상을 간결히 설명하는 방법은 should의 도치를 I에서 C로의 핵 이동으로 간주하고, if를 보문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2c)에서 C는 이미 if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should가 핵 이동될 수 없다.

핵 이동 규칙 설정의 근거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동휘, 1994:173-78). 우선 성분구조의 특성을 간결히 규명할 수 있다.

- 3) a. John will go to the party.
 b. Will [_{IP} John t_i go to the party]?
 c. *Will [_{IP} John can go to the party]?

3b)에서 보듯이, Aux가 주어 앞에 올 때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또 다른 Aux가 올 수 없다. 종래의 생성문법에서는 이경우 조동사만을 움직인 핵 이동이 아니라, 주어와 Aux가 함께 이동된 주어-Aux 도치가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어-Aux 도치는 주어와 Aux가 자리바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핵 이동은 보편문법 원리에 어긋난다.

핵 이동을 설정함으로써, 하위범주구분 제약을 간결히 보존할 수 있다.

- 4) a. John can go to the party.
 b. *John can goes to the party.
 a'. Can_i [_{IP} John t_i go to the party]?
 b'. *Can_i [_{IP} John t_i goes to the party]?

4)의 예문들의 문법성 차이는 'can과 같은 Aux는 원형 동사의 최대투사 범주를 보충어로 택한다'는 하위범주구분 제약으로 설명될 수 있다. Aux는 VP앞에 있다가 흔적을 남기고 주어 앞으로 이동해 가고, 그 흔적이 보충어로 VP를 취한다면 4)의 문장들의 문법성 설명이 가능해진다.

핵 이동규칙 설정은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관계를 포착하게 한다.

- 5) a. Could_i [_{IP} John t_i come to the party]?
 b. I don't know whether [_{IP} John could come to the party].

5a)의 직접 의문문이 5b)에서는 간접 의문문이 되고 있다. 직접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에서 Aux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설정되는데, 직접 의문문에서는 Aux가 주어 앞으로 핵 이동되고 있다. 만일 직접 의문문에서 Aux가 주어 앞에서 기저-생성된다고 가정한다면, Aux가 VP 보충어를 필요로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핵 이동을 설정함으로써, 핵과 선택제약 관계는 간결하게 설명된다.

- 6) a. Have_i [_{IP} you *t*_i finished your assignment]?
- b. Am_i [_{IP} I *t*_i to believe what you tell me]?
- c. Are_i [_{IP} you *t*_i washing your hair again tonight]?
- d. Was_i [_{IP} she *t*_i harassed by the police]?

6a)에서 완료조동사 have는 과거분사인 VP를 보충어로 취해야 한다는 선택제약의 요구조건을 흔적 *t*를 통해 만족시켜 주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6b)-6d)에서도 Aux인 be동사와 그 보충어 사이의 선택제약이 be동사의 흔적을 통해 만족되고 있다.

Chomsky(1995)에 의하면 의문절의 C는 강핵(strong head)이고, 강핵은 채워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He asked [if I would marry him]' 내 asked의 보충어절에서 C는 if에 의하여 채워질 수 있다. 따라서 1)에서 A의 대답은 'I wanted to ask you [if you will marry me]'의 단축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 C를 주절을 이끄는 데 사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절인 의문문에서 강한 C-절점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강한 C-절점은 I에서 Aux를 C로 유인하는 힘을 갖게 된다. Chomsky(1995)에 의하면 의문문의 C에는 추상적 의문접사 Q가 있어서, Q의 성격상 Q에는 의문의 C인 if나 will과 같은 Aux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범주가 강성이다 혹은 약성이다 하는 가정은 의문문의 복잡한 특성을 흥미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영어에서 Aux가 없는 의문문은 허사적 Aux인 do를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문의 C는 강성이어서 무엇인가에 의하여 채워져야 하는데, 보문사가 주절의 C위치를 채워서는 안된다면 I에서 Aux인 do를 생성시켜 C로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do가 직접 C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는 do가 VP보충어를 필요로 해서 I에서 do가 생겨날 때에만 VP보충어를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문법적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곳에서만 허사적 do가 최후수단(last resort)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최후의 의존조건은 불필요한 구성성분의 사용과 불필요한 작용을 억제하려는 경제원리(economy principle)에서 생겨나고 있다.

의문문에서 Aux가 I에서 C로 이동된다는 가정은 IP의 핵인 I위치에 흔적을 남기게 하고 이 흔적이 Aux의 핵 자질을 가짐으로 해서 7)에서처럼 핵의 지정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7) a. Will *she*/**her* marry me? (surface structure)
- b. *Will you marrying me? (surface structure)

a'. Will *she*/**her* *t* marry me? (S-structure)

b'. * Will you *t* marrying me? (S-structure)

7a')와 7b')의 흔적 *t*는 원래 I와 같은 문법적 특성을 모두 지닌다. 원래 I는 지정어와 보충어를 필요로 하지만, 음성적 내용만 없을 뿐이다. 7a')에서 *her*가 사용될 수 없는 것은 marry앞 I-흔적이 지정어로서 주격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이고, 7b')가 비문인 것은 I의 흔적은 Will과 마찬가지로 VP 보충어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동된 요소는 문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뒤에 흔적을 남기고, 자신은 그 흔적의 선행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사와 흔적은 하나의 연쇄를 형성하고 선행사는 흔적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C와 I는 하나의 연쇄가 형성된다. 이 연쇄가 성분통어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동되는 요소는 I의 흔적을 성분통어 할 수 있는 위치로 항상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외에 이동되는 요소가 흔적을 남겨야하는 경험적 근거는 축약에서 찾을 수 있다.

- 8) a. Should *I* have/**I*'ve called the Police?
 b. Will *we* have/**we*'ve finished by 4 o'clock?
 c. Would *you* have/**you*'ve wanted to come with me?
 d. Could *they* have/**they*'ve done something to help?
- 9) a. I *should* have called the Police.
 b. We *will* have finished by 4 o'clock.
 c. You *would* have wanted to come with me.
 d.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to help.

8)의 문장들은 9)의 문장들에서 Aux가 핵 이동되어 C로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8)에서 Aux와 대명사간에 축약이 안되는 것은 '축약되는 요소는 축약이 주체가 되는 요소와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인접조건(Chomsky 1981:94)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명사와 have 사이의 흔적이 have축약을 방해하고 있다.

다음은 V-핵 이동의 경우를 살펴보자. 'Is he a student?' 나 'Has he a car?' 와 같은 의문문에서는 V가 주어 앞에 나와 있다. 그러나 주어 앞에 나와 있는 V들은 'VP의 지정어 위치는 주어로 채워진다'는 동사구내 주어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Koopman & Sportiche 1991: 211-12)에 의하여 기저구조에서 VP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어앞에 나와 있는 V들은 VP의 V위치에서 CP의

C위치로 핵 이동된다고 본다.

- 10) a. [_{CP} Is_i [IP he t_i [VP t_i a student]]]?
 b. [_{CP} Has_i [IP he t_i [VP t_i a car]]]?

10)의 경우 V가 C로 직접 핵 이동된 것이 아니라 V가 일치의 자질을 점검 받기 위하여 I로 핵 이동되고, 다시 [+Q]자질을 점검 받기 위하여 C로 핵 이동된다고 본다. 즉, V에서 I로의 핵 이동은 V홀로 이동한 것이지만, I에서 C로의 이동은 I+V가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는 V-이동은 의문문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서문에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_{IP} Susan [_I present singular] [_{VP} like tomatoes]]'에서 핵인 V가 V-이동에 의하여 V는 비논항인 I의 일부가 되고 관련된 자질을 통합하여 'Susan [V-I likes] t tomatoes.' 된다고 볼 수 있다.

V-이동은 Shakespear가 글을 쓰던 초기현대영어(Early Modern English: EME)에서 많이 행해졌으나, 현대표준영어[Modern Standard English: MSE)에서는 그렇지 못하다(Radford 1997:114-15). EME에서 not는 술부를 수식하는 VP-부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사실은 11)의 문장들 처럼 Aux와 V가 있을 경우 not는 Aux와 V사이에 존재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1) a. Didst thou not hear somebody?
 b. Will you not dance?
 c. Have I not heard the sea rage like an angry boar?

그러나 Shakespear시대 영어에서 Aux가 없을 때 부정의 not은 V다음에 오고 있다. 이것은 I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동사는 VP의 핵인 V위치에서 IP의 핵인 I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 12) a. He *heard* **not** that.
 b. My master *seeks* **not** me.
 c. I *know* **not** where to hide my head.

V-to-I 이동과 I-to-C 이동은 국부적이다. 즉, 이동되는 핵은 구조내의 바로 다음 상위구의 핵 위치로 이동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문법의 일반원리를 따르는 셈이

다. EME의 의문문에서도 MSE의 의문문에서처럼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전도가 I-to-C 이동이라는 가정하에서는 EME의 동사가 I로 이동되었다가 다시 C로 이동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 결과는 13)과 같다(Radford 1997:117).

- 13) a. **Saw** you my master?
 b. **Came** you from the church?
 c. **Know** you not the cause?

13)문장들의 V가 주어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동사들이 V에서 I로 이동되고, 그 다음 다시 I에서 C로 연속적인 핵 이동에 의하여 상승이동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들 이동은 한꺼번에 뛰어넘지 않는 국부적 이동이다.

위 12)과 같은 부정문과 13)와 같은 의문문은 MSE에서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취급될 수 없다. 이는 EME에서는 Aux없이 사용된 한정동사가 강한 일치자질을 갖고 있는 반면에, MSE에서는 정형동사가 약한 일치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정동사가 강/약 일치자질을 갖도록 하는가? Radford(1997: 119)는 한정동사가 풍부한 일치 굴절형을 갖고 있으면 강한 일치자질을 갖고, 빈약한 일치굴절형을 갖고 있으면 약한 일치자질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EME와 MSE에서 한정동사가 지니는 일치자질의 강도 차이는 통사상 나타나고 있다. EME는 공주어 언어(null subject language)였다. 이것은 일치 굴절체계가 풍부한 언어에서는 일치 굴절형 자체에 의해 인칭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14)와 15)에서 볼 수 있듯이 MSE에서는 3인칭 현재 단수에만 -s 굴절형이 있으나, EME에서는 인칭에 따라 풍부한 굴절형이 있었다(Radford 1997:119-20).

- 14) a. Hast any more of this?
 b. Sufficeth, I am come to keep my word.
 c. Would you would bear your fortunes like a man.
 d. Lives, sir.
- 15) a. ~~Have you any more of this?~~ Have I come to keep my word.
 c. I wish you would bear your fortunes like a man.
 d. He is alive, sir.

결국 한정동사가 강한 일치자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약한 일치자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Aux없는 한정동사가 I로의 상승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허사적 주어

를 갖게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EME에서 동사는 강한 일치자질을 갖고 있어서 허사적 주어를 허용하지만, MSE에서는 동사가 약한 일치자질을 갖고 있어서 허사적 주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EME에서 동사의 강한 일치자질은 V-to-I이동에 의해 견제되지만, MSE에서 동사의 약한 일치자질은 V-to-I로의 침투에 의하여 견제된다고 볼 수 있다.

제Ⅲ장 논항 이동

술어가 갖는 구조에 따라 일정한 의미역을 갖는 요소를 논항이라 한다. 논항이 될 수 있는것은 NP, 변항(variable), 대용어(anaphor), 대명사류(pronominals) 등이 있다. 통사상 주어는 기저에서 의미역표시되는 VP-지정어 위치에 있다가 상승작용에 의하여 격표시되는 IP-지정어 위치로 이동된다. 이장에서는 상승구문과 수동구문에서 논항 이동현상을 통사론적, 형태론적 그리고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 특히 상승술어와 통제술어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 16) a. It **seems** [that *he* understand her].
 b. *He* **seems** [to understand her].
- 17) a. It would **appear** [that *they* are lying].
 b. *They* would **appear** [to be lying].
- 18) a. It **happened** [that *she* came across an old love-letter].
 b. *She* **happened** [to come across an old love-letter].
- 19) a. I **turned out** [that *Mary* was right].
 b. *Mary* **turned out** [to be right]

위 16)-19)의 볼드체 동사들은 a)에서는 that-절, b)에서는 부정사-절을 보충어로 취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것은 a)의 괄호 속 주어가 b)에서 주절의 주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의 보충어 절의 주어위치는 원래 격이 배당되는 위치가 아니어서 뒤에 흔적을 남기고 격을 받을 수 있는 주절의 주어 위치로 상승된다.

Seem, appear, happen, turn out, be likely 등과 같은 상승술어 구문은 PRO를 주어로 취하는 try와 같은 통제술어의 그것과는 구조상 다르다.

- 20) a. There *seemed*/**tried* to be someone living there.

- b. There *seemed*/**tried* to be no milk left in the refrigerator.
 c. There *seemed*/**tried* to be little hope of finding them alive.

20)에서 *seem*과 같은 상승술어는 허사적 *there*주어를 허용하지만, *try*같은 통제술어는 허사적 *there*주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허사적 *there*는 비지시적 대명사이기 때문에 PRO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try*같은 통제술어는 지시적 표현을 주어로 취하고, 주어에 행위자인 의미역을 배정한다. 그 때문에 *try*는 주어로 이성적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요구한다. 20)에서 상승동사가 허사적 *there*를 그들의 주어로 허용한다는 사실은 상승동사가 주어에 의미역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어에 의미역을 가하는 동사는 주어 선택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에 의미역을 배정하는 동사는 통제술어이고, 주어에 의미역을 배정하지 못하는 동사는 상승술어이다.

- 21) a. He does seem to enjoy syntax.
 b. He does try to enjoy syntax.
 a'. [_{IP} He_i does [_{VP} t_i seem [_{IP} t_i to [_{VP} t_i enjoy syntax]]]].
 b'. [_{IP} He_i does [_{VP} t_i try [_{IP} to [_{VP} PRO enjoy syntax]]]].

21)에서 *try*와는 대조적으로 *seem*이 상승술어라면, 기저에서 'enjoy syntax'의 주어는 경험자 의미역을 취하게 된다. 그 후 *to*앞, *seem*앞, IP-지정어 위치로까지 상승이동 한다. 상승술어가 그들 주어에 의미역을 배정해 주지 못한다면, 21a')에서 *he*에 배정된 유일한 의미역은 'enjoy syntax'가 배정해 준 경험자 의미역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각 논항에는 하나의 의미역만 배정 된다'는 의미역 기준(θ -Criterion: Chomsky 1981:36)을 만족시키게 된다. 21a')에서 왜 *he*는 원래의 위치에서 국부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계속 상승이동 하는가? 이것은 격이 없는 논항인 *he*가 IP-지정어 위치에서 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1b)가 21b')와 같은 유도과정을 거친다면, 21b')에서 PRO에 *enjoy*가 경험자 의미역을 배정하고, He에 *try*가 행위자 의미역을 배정하여 의미역 기준을 만족시킨다.

Chomsky(1957, 1965)는 수동화 현상을 주로 수동변형규칙에 입각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으므로 개별-언어적 분석을 넘어서지 못했으나, GB이론(Chomsky 1981)에서는 격이론, 의미역이론, 등의 보편문법 원리에 입각하여 조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보다 깊은 언어-보편적 분석이 가능해진다. 표준이론(Chomsky:1965)에서는 능동구문을 D-구조에서 설정해서 변형에 의하여 수동구문을 도출했었다. GB이론(Chomsky 1981)에서는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의 기저구조는 원래 다른 것으로 보

고 문장내의 NP-요소를 비어있는 주어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일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동주어와 능동보충어가 똑같은 의미역을 갖고 있다.

- 22) a. They cooked many *new dishes*!/new theories at the exhibition.
 b. Many *new dishes*!/new theories were cooked _____ at the exhibition.
- 23) a. They arrested *the students*?/the camels!/the ideas.
 b. *The students*?/The camels!/The ideas were arrested _____.

22)-23)에서 수동주어들은 보충어에 배당되는 주제/피동자 의미역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능동구문의 보충어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사 보충어가 수동주어 위치로 이동되는가?

- 24) a. [_{IP} [_{SPEC} The students.] [_i [I were] [_{VP} [_{SPEC} t.] [_v arrested t.]]]].
 b. The students. were [_{VP} all t. arrested].
 c. There were [_{VP} [_{SPEC} several students.] [_v arrested t.]].

24a)에서처럼 the students가 arrested의 보충어 위치에서 VP-지정어 위치를 거쳐 IP-지정어 위치인 주어가 되고 있다. the students가 VP의 주어인 지정어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를 24b)같은 문장내의 유리양화사(floating quantifier) all의 위치와 관련해서 찾을 수 있다. all은 이동된 the students의 VP-지정어 속의 흔적을 수식한다. 수동화된 논항의 수동 조동사의 주어가 되기전에 수동 분사의 주어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24c)와 같은 허사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several students는 arrested의 보충어 였다가 VP-지정어에 이동되고 다시 IP-지정어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는 이미 허사적 요소에 의하여 채워져 있기 때문에 VP-지정어 위치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 25) a. He is [_{VP} t. thought [_{IP} t. [_i [I to] [_{VP} t. [_v admire her]]]]].
 b. The boat. is [_{VP} t. thought [_{IP} t. [_i to [_{VP} t. be up]]]].
 c. ?His goldfish!/His theory is [__thought [__to [__admir her]]].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 하에서는 25a)의 he가 원래 하위절의 VP-지정어 위치에 있다가 다시 IP-지정어 위치로, 다시 상위절의 VP-지정어로, 마지막으로 상위절 IP-지정어 위치로 이동된다고 보아야 한다. 25)와 같은 구문에서 부정사 보충

어절의 주어가 수동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는 25b)에서 VP의 일부인 관용적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25b)에서 하위절의 VP는 'The jig is up.' 이 된다. 더욱이 25c)는 의미역관계에 의하여 통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His goldfish/!His theory admires her.' 는 어색하다.

상승작용과 수동화작용은 별개의 것인 양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상승은 주어위치에서 주어위치로 상승이동이고, 수동화는 보충어 위치에서 주어위치로 상승이동인 것이다. 사실상 수동화와 상승은 한 논항위치에서 어떤 요소를 자신을 포함하는 상위 주어 논항위치로 이동시키는 논항-이동 작용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동화된 구문의 논항-이동은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인가? 이것은 구성요소들이 형태론적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논항은 유도 과정에서 격배정되어야 하는데 수동분사는 원래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분사의 보충어 위치에서 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제 IV 장 운용소 이동

운용소(operator)란 all, every, some과 같은 양화사나 의사양화사로 간주되는 wh-의문사 등과 같이 LF에서 논리운용소가 되어 변항을 결속하는 요소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wh-이동 규칙을 설정해야 할 이론적 근거를 통사적, 형태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동되는 wh-요소의 착지 및 이동에 대한 제약의 제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CP가 C와 IP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음 26)의 이탤릭체 요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표면상으로는 각 문장의 CP의 핵인 C위치에는 전도된 Aux가 있고, 그 앞에 이탤릭체 요소가 있다.

- 26) a. *What languages* can you speak?
 b. *No other colleague* would I trust.
 c. You can speak *what languages?*(echo question)
 d. I would trust *no other colleague.*

26a,b)의 이탤릭체 부분에는 운용소가 포함되어 있다. 정확히 말해서 what은 의문

운용소 이고, no는 부정 운용소 이다. 운용소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을 운용소 표현이라 한다. 26a.b)의 운용소 표현들은 원래 동사의 보충어였다는 증거는 26c.d)에서 찾을 수 있다. 만일 운용소 표현들이 동사의 보충어 위치에서 문두로 이동된다면 정확히 그 착지가 어디인가? 그 위치는 CP-지정어 위치인 것이다.

- 27) a. [_{CP} [_{SPEC} What languages_i] [_C [C can_i] [_{IP} you [_I t_i] [_{VP} speak t_i]]]]].
 b. [_{CP} [_{SPEC} No other colleague_i] [_C [C would_i] [_{IP} I [_I t_i] [_{VP} trust t_i]]]]].

27)의 두 문장에는 2개의 이동 작용이 있다. 하나는 I에서 C로 이동하는 핵-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운용소 표현을 CP-지정어 위치로 이동시키는 운용소 이동이다. 운용소 이동이 wh-어로 시작되는 운용소를 포함하는 표현에 적용될 때, wh-이동이라 한다. 이동되는 Aux나 NP가 뒤에 흔적을 남기듯이 이동되는 운용소 표현들도 뒤에 흔적을 남긴다. 운용소 표현들이 흔적을 남긴다는 증거는 wanna-축약이나 have-축약에서 찾을 수 있다.

- 28) a. Who would you want to/*wanna help you?
 b. Which boys would you say have/*say've got most out of the course?
 c. Who have/Who've they arrested?
 a'. [_{CP} [_{SPEC-CP} Who_i] [_C would] you want t_i to help you]]?
 b'. [Which boys_i] would you say t_i have got most out of the course?
 c'. [_{SPEC-CP} Who_i] have_i they t_i arrested t_i?

28a)에서 wanna축약이 안 되는 것은 28a)의 S-구조인 28a')나 'You'd want who to help you?'와 같은 반향 의문문(echo question)에서 보듯이 who가 'to help you'의 주어였다는데 있다. 또 완료의 Aux인 have는 변이형 /v/을 갖고 있는데 이는 모음/이중모음으로 끝나는 바로 앞단어에 붙어 축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8b)에서는 안되고 있다. 이것은 28b)의 S-구조인 28b')에서 보듯이 which boys는 have의 주어였는데 상승이동 되면서 뒤에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이 have-축약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28c)에서 who가 have와 인접해 있어서 have-축약은 가능하다. 전치되는 운용소는 SPEC-CP에 이동되고, 전치되는 Aux는 COMP에 이동된다. 전자는 운용소 이동이고, 후자는 핵 이동이다. 결국 CP-지정어 위치가 전치되는 운용소 표현의 착지인 것이다.

운용소 표현이 CP-지정어 위치로 이동된다는 또 다른 증거는 영어 방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영어 방언에서 전치되는 wh-구가 C앞에 오고 있다. 즉, wh-구는 SPEC-CP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that는 C위치에 있다.

- 29) a. I wonder [**which dish** *that* they picked].
 b. They didn't know [**which model** *that* we had discussed].

의문의 운용소 표현은 왜 CP-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가? CP의 핵인 C에는 의문의 지정어 자질[wh]이 있고, who와 같은 wh-운용소에도 의문의 원래 자질[wh]이 있다. 따라서 wh-운용소는 C가 갖고 있는 의문 지정어 자질을 견제하기 위하여 CP-지정어 위치로 이동된다. 이때 C에 있는 의문의 지정어 자질은 견제되어 생략된다. 왜냐하면 지정어 자질은 의미내용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wh-구의 원래 자질[wh]은 LF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생략되지 않는다.(Radford 1997:135)

Wh-이동이 의문문의 COMP내 지정어 자질[wh]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어난다는 가정은 다중 wh-의문문에서 하나의 wh-운용소만이 전치됨을 설명해 준다.

- 30) a. Who do you think will say what?
 b. *What who do you think will say?
 c. *What do you think who will say?

의문문의 C-지정어 자질[wh]은 who가 SPEC-CP로 이동됨으로 해서 견제되어 생략된다. 이것은 30b)에서 처럼 다른 wh-운용소 표현이 계속해서 SPEC-CP로 이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C-지정어 자질[wh]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다른 wh-운용소가 들어와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30c)가 비문인 것은 who가 COMP에 what보다 가깝고, 경제원리는 장거리 이동보다 단거리 이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wh-구 이동은 who, what 같은 하나의 단어를 SPEC-CP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에는 wh-한정어가 이끄는 DP 전체가 SPEC-CP위치로 이동되는 것을 보게 된다.

- 31) a. **Which film** did you see?
 b. ***which** did you see **film**?
 32) a. **What reason** did he give?

- b. * **What** did he give **reason**?
 33) a. **Whose car** did you borrow?
 b. * **Whose** did you borrow **car**?

31)-33)에서 wh-운용소가 SPEC-CP로 이동될 때, 각 문장 a)에서는 그의 보충어도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wh-어만이 이동되어 착지의 신분과 흔적의 신분이 구조상 연쇄 통일성 원리(chain uniformity principle, Radford 1997:140)를 어기고 있다. 전치되는 요소의 자리는 최대투사 위치인데, 흔적의 위치는 최대투사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DP인 which film, what reason 그리고 whose car 전체가 이동되어야 한다.

다음은 회화체 영어문장과 격식체 문장에서의 wh-구 이동의 문법성을 Radford(1997:140-42)가 경제원리(economy principle)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본다.

- 34) a. [Who.] were you talking to *t*?
 b. * [To whom] were you talking *t*?
 c. * [Talking to who.] were you *t*?

34) 각각의 문장에서 wh-표현인 who, to whom, talking to whom은 자신의 의문사 자질인 [wh]를 점검받기 위하여 SPEC-CP위치로 이동된다. 만일 who만 이동된다면 who와 흔적 *t*의 연쇄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좌측의 전치된 요소와 우측의 흔적은 모두 DP로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PP인 to whom을 SPEC-CP위치로 이동시킨다 해도 연쇄를 이루는 두 요소사이 일관성은 유지된다. 왜냐하면 앞 요소와 뒤 요소는 둘 다 최대투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VP인 talking to whom이 SPEC-CP위치로 이동한다 해도 둘 다 최대투사이기 때문에 선행사와 흔적사이의 일관성은 유지된다. 이러한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DP-전치가 PP-전치나 VP-전치보다 좋은가? 이것은 DP가 PP나 VP요소보다 작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제성 원리에 의하여 운용소 이동이 강한 지정어 자질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구성요소만을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DP이동이 PP나 VP이동보다 훨씬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는 who보다는 whom을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문체상의 변이형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격식체 영어에서는 35)에서 보는 것처럼 상황이 달라진다. 격식체 영어에서 whom 혼자서 전치 될 수 없고 to가 따라가야 한다.

- 35) a. * [Whom.] were you talking to t?
 b. [To whom.] were you talking t?
 c. * [Talking to whom.] were you t?

35a)가 비문인 것은 to가 좌초되어 그의 보충어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6a)가 비문인 것은 격식체 영어에서 전치사 좌초 금지 제약이 있음을 암시한다. 전통적인 문법규정에서는 전치사를 문미에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5c)에서 VP전체가 전치되고 있으나 이것은 C-지정어 자질[wh]를 견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요소만이 전치 되어야한다는 경제원리를 어기고 있다.

이제까지의 관찰에 의하면 모든 wh-의문문은 SPEC-CP위치에 wh-운용소를 이동시키는 CP이다. 그렇다면 36a)와 같은 의문사 주어를 갖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 36) a. Who helped him?
 b. * Who'd help him('d=did)?
 c. [_{IP} [_{DP} Who] [_{VP} helped him]]?

왜냐하면 의문문의 C는 강성이기 때문에 의문문에서 Aux전도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이 문장에서는 Aux가 C로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wh-운용소만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Aux 전치가 있는 곳에서만 wh-운용소가 CP-지정어 위치로 이동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허사적 Aux인 do가 36b)에서처럼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문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만일 who가 SPEC-CP위치로 이동되지 않는다면 36a)는 36c)와 같이 CP구조가 아니라 IP구조가 된다. 따라서 의문사 주어를 갖는 의문문은 IP신분이고, 그 외의 의문문은 CP신분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의문문은 IP신분이고, 또 어떤 의문문은 CP신분이라는 의문문구조에 불균형 현상이 일어 나는가? 이것은 경제원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원리는 어떤 표현이 LF에서 해석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만 투사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wh-의문문이 CP의 지정어 위치에 wh-운용소를 둔다면, yes-no의문문은 지정어 위치에 어떤 요소를 두게 될까? 아마 yes-no의문문은 SPEC-CP위치에서 직접 생성되는 추상적 요소를 갖게될 것이다. 이 추상적 의문의 운용소를 op라 해보자. 이 경우 37a)는 37b)와 같은 구조를 갖게된다.

- 37) a. Is it raining?
 b. [_{CP} [_{SPEC} op] [_C Is] [_{IP} it [I t] [_{VP} raining]]].

역사적으로 볼 때 내현적 운용소 분석이 결코 불가능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EME에서 외현적 yes-no의문 운용소 whether에 의하여 인도되는 독립 yes-no의 문문이 발견되기 때문이다(Radford 1997:145).

- 38) a. *Whether* had you rather lead mine eyes or eye your master's heels?
 b. *Whether* dost thou profess thyself a knave or a fool?

결국 내현적 의문 운용소 분석에서는 EME에서나 현대 영어에서 같은 통사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현/외현의 운용소가 인도하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

제 V 장 이동과 장벽

지배의 여러 개념과 한계이론을 통합하려고 하고있는 Chomsky(1986b)의 장벽 이론은 한 요소가 하나이상의 장벽을 건너 다른 요소를 지배할 수 없으며 두 개 이상의 장벽을 건너 이동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의된다. 지배자는 구 범주의 핵인 N, V, A, P 그리고 이동에 의하여 부여된 공통 지표를 가진 NP 등이다. 만일 핵이 지배자이면 핵-지배이고, 공통 지표된 NP가 지배자이면 선행사-지배이다.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지배를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Chomsky(1986a:161)는 S와 S' 체제를 이분적 IP와 CP로 분석하고, ' α 가 β 를 관할하지 않고 α 를 관할하는 최초 최대투사가 β 를 관할할 때에만 α 는 β 를 최대통어 한다'는 Aoun & Sportiche(1983:224)의 m-통어 개념을 수용하면서 지배 정의에 장벽개념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 지배 정의와 관련된 장벽, 차단범주 그리고 L-표시를 제시하고 있다.

- 39) α governs β iff
 a. α m-commands β and
 b. there is no γ , γ a barrier for β , such that γ excludes α .

(Chomsky 1986b:9)

- 40) γ is a barrier for β iff (a) or (b)
 a) γ immediately dominates δ , δ a clocking category (=BC) for β ;
 b) γ is a BC for β , $r \neq IP$
- (Chomsky 1986b:14)

- 41) γ is a BC for β iff γ is not L-marked and γ dominates β .
- (Chomsky 1986b:14)

- 42) a) α L-marks β iff α is a lexical category that θ -governs β .
 b) α θ -governs β iff α is a zero level category that θ -marks β and α , β are sister.
- (Chomsky 1986b:15)

장벽개념에 기초한 지배 정의 39)는 α 가 β 를 배척하지 않을 때, α 가 β 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 때 지배를 차단하는 장벽 형성 요인은 최대투사 범주와 최소성 조건 두 가지이다. 최대투사가 장벽으로 정의되는 조건은 40)-42)와 같다. 40)의 장벽 중에서 40a)는 L-표시되지 않는 γ 그 자체만으로도 지배를 차단하여 장벽이 되는 고유장벽(inherent barrier)이고, 40b)는 γ 가 δ 로부터 장벽성을 이어받아 장벽이 되는 계승장벽(inherited barrier)이다. 40b)와 41)에 따라 IP를 제외한 모든 최대투사범주는 L-표시 되지 않으면 고유장벽이 된다. 42)에서 α 가 β 를 의미역 지배(θ -government)하는 어휘범주일 때 α 는 β 를 L-표시한다.

Chomsky(1986b:14)는 일단 L-표시 여부로 잠재적 장벽인 차단범주를 정의하고 있다. L-표시란 어휘범주에 의하여 직접 의미역 표시를 받지 못하는 요소는 차단범주가 되는데, 일단 차단 범주가 되면 장벽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어휘요소와 자매관계를 이루지 않는 요소가 차단범주가 된다는 것이다.

- 43) a) John -ed decide [_{CP} e [_{IP} PRO [I' to see the movie]]].
 b) I believe [_{IP} him to be happy].
 c) Who do you think [_{CP} t' [_{IP} t left early]]?
 d) When do [_{IP} you think [_{CP} t' [_{IP} John invited Bill t]]]?

43a)에서 L-표시를 받는 요소는 decide의 보충어인 CP와 see의 보충어인 NP뿐이다. 이 둘을 제외한 주어위치의 NP 및 VP, IP 등은 모두 L-표시되지 못하므로 장벽의 가능성이 있는 차단 범주가 된다. 43b)의 believe는 예외적격 표시 동사로

서 보충어절의 주어 him을 지배하고 목적격을 부여한다. 43c)의 흔적 t_i 는 중간 흔적 t'_i 에 의하여 선행사 지배된다. IP는 공범주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지배에 투명하다. 결국 IP가 지배에 대한 장벽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가 된다. 공범주 원리에 의하면 43c)와 43d)의 중간 흔적 t'_i 는 각각 who_i와 when_i에 의하여 선행사-지배되어야 한다. 사실상 t'_i 는 공통 지표된 선행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것은 43c)와 43d)의 CP가 지배의 장벽이 아니라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CP가 장벽이 될 수 있다.

Chomsky(1986b:15)는 IP를 제외한 차단범주는 고유장벽 그리고 차단 범주를 직접 관할하는 범주를 계승장벽이라고 해서 장벽개념을 이분화하고 있다. 43a)의 예문 'John_i -ed decide [_{CP} e [_{IP} PRO_i to [_{VP} see the movie]]]' 에서 PRO가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decided와 PRO사이에 지배관 계를 차단하는 장벽이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P는 decided에 의해 L-표시되므로 차단범주가 아니고, IP역시 그 자체로는 장벽이 되지 못하므로 PRO는 지배되어 비문으로 잘못 예측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계승장벽 개념이다.

- 44) a. * [_{CP} Who_i did [_{IP} [_{NP} stories about t_i] terrify Mary]]?
- b. * [_{CP} Which book_i did [_{IP} John meet [_{NP} a child [_{CP} who read t_i]]]]?
- c. * [_{CP} How_i did John [_{VP} t_i [_{VP} meet [_{NP} a man [_{CP} who fix the car t_i]]]]?
- d. * ? [_{CP} How_i did John [_{VP} t'_i [_{VP} announce [_{NP} the plan [_{CP} to fix the car t_i]]]]]?

44a)에서는 NP가 L-표시되지 못하여 차단범주가 되므로 고유장벽이 되고, IP가 이 NP로부터 장벽성을 이어받아 계승장벽이 된다. 따라서 who_i- t_i 의 연쇄는 두개의 장벽을 넘어 연쇄고리를 형성하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어겨 비문이 된다. 공범주 t_i 는 전치사 about에 의하여 지배되지만, 전치사는 고유지배가 아니므로 공범주원리를 어기고 있다. 44b)의 공범주 t_i 는 동사 read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공범주원리를 준수하지만, 하위인접조건을 어기고 있다. 44c)에서는 CP가 L-표시되지 않아 고유장벽이 되며, NP는 meet에 의해 L-표시되어 고유장벽은 아니지만 CP에서 장벽성을 이어받아 계승장벽이 된다. 따라서 t_i 가 CP내의 t 를 선행사 지배할 수 없으므로 공범주원리를 위배한다. 44d)에서는 NP와 CP가 각각 announce와 plan에 의해 L-표시되어 장벽이 아니다. 그러나 N'가 t 에 대한 최소장벽이 되어 t'_i 가 t 를 선행사 지배할 수 없으며, N이 t 를 의미역지배할 수도 없으므로 공범주원리에 저

촉된다. 이때 최소장벽은 이동에 대한 장벽이 아니므로 44d)는 공범주원리만 위배하지만, 44c)는 공범주원리와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여 44d)보다 적격성이 낮다.

다음은 위 예문들 중 VP-부가와 최소장벽에 관련된 문제를 보기로 한다.

- 45) a. Who_i does [IP John [VP love t_i]]?
 a'. Who_i does [IP John [VP t'_i [VP love t_i]]?
 b. Who did you believe [CP t'_i [C' e [t_i would win]]]?
 c. *Who did you believe [CP t'_i [C' that [t_i would win]]]?

Chomsky(1981)의 LGB에서는 45a)의 t가 love에 의하여 어휘지배되어 공범주원리를 충족시키지만, VP를 장벽으로 분석하는 Chomsky(1986b)의 장벽이론에서는 wh-구 이동이 VP 및 IP 두 개의 장벽을 건지게 되어 하위 인접조건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5a')에서처럼 wh-구가 우선 VP에 부가되어 VP의 장벽성을 피하게 되고, IP가 VP로부터 장벽성을 계승받을 가능성도 사라져 하위인접조건을 만족시키는 적문이 된다. 45b)에서는 t가 t를 선행사를 지배하고 있다. 반면에 45c)에서는 C'가 최소장벽이 되기 때문에 t'가 t를 선행사 지배할 수 없어서 공범주원리를 어겨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두 흔적 사이에 지배를 방해하는 요소인 잠재적 지배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보통 잠재적 지배자는 CP-지정어 위치에 존재하는 명시적인 wh-요소와 보문사 that를 가리킨다. 45c)에서는 that가 t를 지배할 수 있다. 이 최소성 장벽 때문에 t'가 t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VI. 결 론

Chomsky(1981)에 의하여 제안된 GB이론은 언어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규칙체계와 원리체계를 두고, 이 두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두 체계는 상호 보완적인데, 원리체계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규칙체계는 그 역할이 매우 미약해지고 있다. 이 원리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상호협조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GB이론을 조합문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조합문법(Modular Grammar)을 중심으로 하면서 Chomsky(1986b)의 장벽이론에서의 α -이동을 연구했다.

α -이동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핵과 최대투사는 이동할 수 있는데, 핵은 항상 핵위치로 이동하고 최대투사는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따라서 I-이동은 C 위치로 이동이고, V-이동은 V가 일치의 자질을 점검받기 위하여 I 위치로 핵이 이동되고, 다시 [+Q]자질을 점검받기 위하여 C로 핵이 이동된다고 본다. 이 경우 V에서 I로의 핵이동은 V홀로 이동한 것이지만, I에서 C로의 이동은 I+V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EME의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동되는 최대투사는 의미역기준, 하위인접조건, 그리고 격여과(격여과는 논항-연쇄에만 적용 됨)를 준수함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핵이 핵 위치로 이동은 이동이 반드시 구조보존가설을 준수하기 위함이고, 의미역기준과 격여과는 핵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격과 의미역은 논항에만 할당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NP는 A-위치로 wh-구는 A'-위치로 달리 이동하는 것 같지만, 이 위치는 둘 다 지정어 위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NP인 최대투사가 격을 받기 위하여 IP-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고, wh-운용소를 포함하는 최대투사는 의문의 자질 [wh]를 견제받기 위하여 CP-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α -이동이 어떠한 변형구조를 형성할지라도 그것은 위에 열거한 원리 체계 등에 의하여 규제·조정되어 결과적으로는 부적형 구조는 탈락되고 적형 구조만이 남게 된다. 이처럼 제한된 원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자율적으로 하게되는 조합문법은 모든 변형규칙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게 되고, 여기에서 더 나가 원리체계가 모든 문법적 요소를 허가하는 허가문법(licensing grammar)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최대투사와 최소조건을 기초로 하는 장벽개념 소개와 새로운 장벽의 개념이 고유 지배, 하위인접조건, 논항연쇄 등에 미치는 장벽효과를 다룬 장벽이론은 상대적 장벽의 개념을 통하여 문법의 원리적 설명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문법을 지향하는 GB이론의 올바른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Chomsky(1986b)의 이론은 표준이론(1965)이나 LBG(1981)보다 훨씬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만일 최대투사와 핵 요소가 이동될 수 있다면 왜 중간범주인 X'는 이동이 안 되는가? X'는 α -이동에 비가시적 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이동규칙이 일반화 될 수 있는 것이 구조보존가설에 의한 것이라면 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 같은 층위의 X' 위치로 이동도 가능할 것 같다.

둘째, 장벽이론과 공범주 원리에 따르면 I의 보충어인 VP는 L-표시되지 않으므로 장벽이 되지만 V가 I로 핵이동하여 V-I로 융합되면 V-I는 어휘범주 이므로 VP를 L-표시하게 되며, 이동한 V가 그 흔적을 선행사 지배하는 데 장벽이 되지

않으므로 공범주원리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어휘범주만이 의미역지배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설득력이 모자란다. 또 V-I가 C로 상승할 때는 IP가 결합범주로서 장벽이 되지 않으며, I' 역시 결합 범주로서 최소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V-I의 흔적 역시 선행사 지배된다고 보고 있는데 IP나 I'가 결합범주라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힘들었다.

세째, 최대투사는 왜 항상 지정사 위치로 이동해야만 하는가? 지정어 위치를 IP-지정어 위치, CP-지정어 위치, VP-지정어 위치 등으로 생각했을 때 장벽이론에서 V'는 최소성에 의해서 장벽이 될 수 있으면서, VP는 차단 범주가 될 수 없다는 VP-부가 규칙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omsky가 제시하는 VP-부가는 '[who_i [_{IP} ... [_{VP} t'_i [_{VP} ... [_{CP} t'_i]]]]'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VP-부가에 의해 VP의 장벽성이 회피되면 IP가 VP로부터 장벽성을 계승할 가능성도 봉쇄되고 IP는 그 자체로는 고유장벽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각 흔적과 선행사 간에는 아무런 장벽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 '[_{CP} Who_i do [_{IP} you [_{VP} think [_{CP} [_{IP} John [_{VP} saw t_i]]]]]]]'? 과 같은 문장은 적형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유독 VP에만 부가가 적용되느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장벽이론의 또 한가지 문제는 '어휘범주에 의해서 의미역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최대투사는 차단범주가 되며, IP를 제외한 모든 차단범주는 자동적으로 장벽이 된다'는 정상장벽과 '어떤 요소에 좀더 가까이 있는 지배자가 있을 경우 멀리 떨어진 위치의 지배자는 설령 중간에 장벽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위치의 지배자가 최소성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요소를 지배할 없게 된다'는 최소장벽의 비대칭성이다. 정상적 장벽은 지배와 이동에 모두 관계가 있지만 최소장벽은 오직 지배에만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who_i do you think [t'_i [_C that [t_i saw Mary]]]]'에서 that의 존재가 최소장벽을 생성하게 되고 그 결과로 비문이 되고 있지만, 'who_i do you think [t'_i [_C that [John [_{VP} t'_i [_{VP} saw t_i]]]]]]'에서는 최초 흔적인 t가 동사 saw의 의미역지배를 받고 S-구조에서 [γ]자질을 부여 받아서 문법적이다. 또 'why_i do you think [t'_i [_C that [John left early t_i]]]]'에서 최초 흔적인 t가 논항 흔적이기 때문에 공범주원리가 LF-층위에서 적용되어 의미내용이 없는 that가 탈락되므로 C'가 최소장벽이 되지 못하여 적문이 되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참 고 문 헌

- Aoun, J & D. Sporliche. 1983. "On the Formal Theory of Government," *The Linguistic Review* 2.
- Baker, C. L. 1995. *English Syntax*, Cambridge, Mass.:MIT.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ass.:MIT.
- _____.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Anderson, S. & P.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Y:Holt, Rinehart and Winston.
- _____. 1981. *Lecture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Foris.
- _____.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Y: Praeger.
- _____. 1986b. *Barriers*, Cambridge, Mass.:MIT.
- Contreras, H. 1990. "Two Kind of Minimality," *Linguistic Inquiry* 21-3.
- Culicover, P. 1982. *Syntax*, NY:Academic Press.
- _____. 1997. *Principles and Parameter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Y.
-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Cambridge, Mass.:Blackwell.
- Koopman, H., and D. Sportiche. 1991. *The Position of Subjects*, *Lingua* 85:211-258.
- Lasnik, H. & J. Uriagereka. 1988. *A Course in GB Syntax*, Cambridge, Mass. MIT.
- Newmeyer, F. 1983. *Grammatical Theory*,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uhalla, J. 1994. *Transformational Grammar*, Edward Arnold, New York.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양순 · 박연미. 1994. 「영어 통사론 강의」, 형설출판사.
- 나병모. 1994. 「영어통사론」, 도서출판 글.
- 박상수. 1994. 「영어통사론」, 형설출판사.
- 한학성. 1995. 「생성문법론」, 태학사.

Abstract

α -Movement in English Syntax

Tae-hong Ko

The ultimate goal of GB-Theory is to characterize the nature of the internalized linguistic system which enables humans to speak and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In Chapter I, I outline the innateness hypothesis and UG principles put forward by Chomsky. Chomsky in the 1990's has minimized the theoretical and descriptive apparatus used to describe languages.

In Chapter II, I discuss the syntax of head movement which involves I-movement and V-movement. I argued that they are two different reflexes of a more general head movement operation, and that head movement is subject to a strict locality constraint.

In Chapter III, I suggest that raising predicates allows the subject of an embedded complement to be raised up to become the subject of the raising verb. I contrasted raising predicates with control predicates. I went on to examine the syntax of passivized arguments, in which the complements of passive participles are raised up to become the subject of the passive auxiliary **be**. I argued that raising and passivization are two different manifestations of a single **A-Movement** operation whereby an argument moves from a subject or complement position into a higher subject position.

In Chapter IV, I argue that wh-questions are CPs headed by a COMP constituent with a [wh] specifier-feature, and that this specifier-feature is checked by moving a wh-expression containing an interrogative operator with a [wh] head-feature into spec-CP. I go on to argue that questions with wh-subjects are IPs, and that the interrogative operator in such cases is in spec-IP.

In Chapter V, I summarize the **Barriers** framework. The goal of this approach is to unify all of the extraction constraints in terms of a single notion of **Barriers**. The notion of **Barriers** must be defined in terms of

government. **Barriers** are determined in two ways: on the basis of L-marking and by the Minimality Condition. The I-projection system is defective in that \bar{I} and IP are barriers only by inheritance.

In Chapter VI, I conclude the result of this study. α -movement includes X-movement and XP-movement. X-movement moves head into head, while XP-movement moves XPs into spec-XP. The theory of movement allows two options, substitution and adjunction. The operation of all movements is constrained by a number of UG principles, including the c-command condition on binding, the shortest movement of principles, the θ -Criterion, government, barriers, etc. I am afraid that In Chomsky's barriers, VP-Adjunction, that-t effect and X'-movement impossibility don't have persuasive power in explaining grammatical relation syntax.